

대행 스님

자식에게도 착을 두지 마시고 그저 사랑으로써 대해야 합니다

일체가 내 부모 내 자식 아님 없다

질문 선법가 '삼세가 둘 아닌 노래' 가사에도 있듯이 일체가 내 부모 내 자식 아님 없다 하셨는데 그 이치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.

답변 우리 배 속에 있는 모든 걸 보세요. 그게 증거물입니다.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증거물입니다. 어디서부터 왔습니까? 여러분, 산에 가도 좋고 물에 가도 좋죠? 여러분네 고향이기 때문입니다.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, 청산유곡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신선하고 좋고, 또 맑은 물이 쉴 사이 없이 흐르는 걸 봐도, 계곡에 가서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가 노는 걸 봐도 싱그럽고 좋지요. 그게 여러분 고향이에요. 수없는 겁을 거쳐서 인간까지 이렇게 모습을 가져왔고 기어 다니다가도 모습을 가져왔고….

지금도 여러분한테 꽁지가 조금 붙었습니다. 꽁지 안 붙은 분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. 그 흔적이, 꽁지 떨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? 그러니 이것도 말짱 벗어나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생각으로 살 수 있죠. 생각으로 운전할 수 있고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죠. 사람까지 이렇게 맛볼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.

어떤 때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, 기다란 유체 같은 게 가요. 그건 이름도 모르죠, 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. 가다 보면 알을 까서 뒷꽁무니에 질질질질 끌고 가서는, 풀을 갖다가 발로 두껍게 알 밑에다 깔고는 풀로 살짝 덮어 놔요. 그런 걸 하나 보더라도 '야! 요렇게 묘하구나.' 요렇게 묘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 오고 있었다는 거…. 우리가 하다 못해 요만한 미생물에서부터 그렇게 스스로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까지 돼서도 자식들을 그냥 덮어 주고 입혀 주고 먹여 주고, 이러면서 어디를 나가서 안 들어오기만 해도 안절부절못하고, '빨리 들어와야지.' 하면서 걱정을 하고 이러는 거죠. 아마 거기에서는 좀 덜 벗어난 것 같습니다.

알고 보면요, 그렇게 거쳐 오면서 모였다 바람처럼 흩어지고 모였다 바람처럼 흩어지고…, 이 식구가 말입니다. 그렇게 흩어져서 또 딴 식구들하고 또 만나고, 진화를 좀 하면 진화한 만큼 또 같이 모이고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적으로 본다면 부모 자식이 따로 없다는 얘기죠. 사는 동안에 같이 모여서 살 뿐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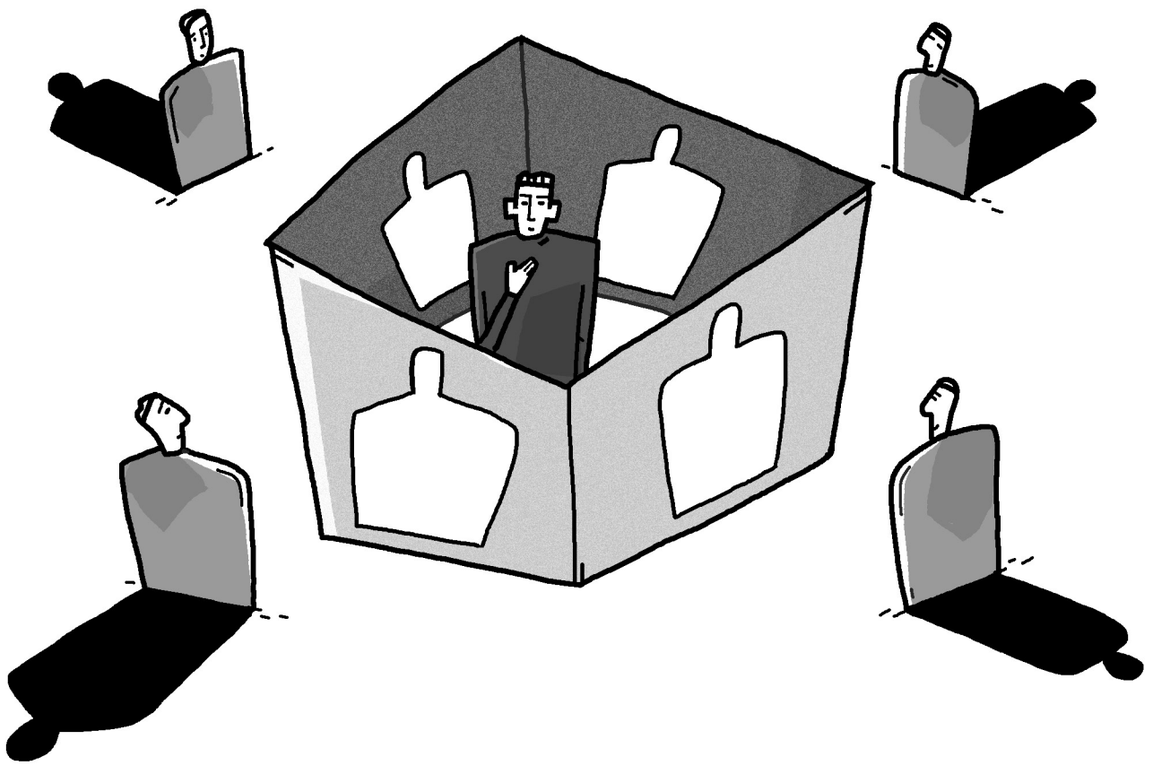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그러니 착을 두지 마시고 그저 사랑으로써 대해야 하는 겁니다. 그냥 뭐 온통 "너 어디서 자고 왔어? 전화번호 대!" 뭐, 틀림없죠. 이럭하면 애들이 반항해서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'자고 올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었길래 그랬겠지.' 하고 "너 배고프지 않으냐?" 하고 아주 딱 받아서 안아 준다면 나가서 자라고 발길로 차도 나가서 안 자요. 그런데 착을 두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. 그것도 대접을 해 줘야 하는데, 꼭 내 손에 들어 있는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.

여러분의 자손들도 전부 늙어 죽어서 애가 된 거예요. 허허허…. 아니, 여러분도 늙어 죽었다가 또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나이를 조금 더 먹었다고 해서 자기가 생산해 놓은 것을 자기 거라고 하겠습니까?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. 절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. 그러니 그저 남의 자식이든 내 자식이든, 남의 부모든 내 부모든 평등하게, 그저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, 있으면 보시하고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보시하고, 이렇게 무주상 보시를 해서 그저 남을 이익하게만 한다면….

그리고 또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, 내가끔 그러죠. 여기 우리 학생들이 올 때가 있죠. "스님! 이러이러한데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" 하고 울 때, 평등하게 내 소유라는 것이 없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, 내 소유라고만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보시를 못합니다, 요구를 해야 하니까. 요걸 가지고 이것만 해야 하니까.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넓게 나지도 못하죠. 그래서 어휴, 가슴이 쓰르르하고, 언제 적 내 자식 네 자식이고, 언제 적 내 부모 네 부모더냐. 모였다가 바람결같이 흩어지는 것이, 스쳐 가는 것이 인생 아닌가. 우리는 방랑객으로서 한데 캠핑 나와서 살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흩어져야 할 인생이 아닌가. 여러분,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, 안 그런가, 그런가.

놓고 가는데 주변에서 바보 같다고…

질문 공부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관하는 것이 잘 이루어져서 환희심이 나더니 요즘은 몸이 아파서 관해도 잘 안됩니다. 그래도 계속 놓고 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게 바보같이 산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계속 공부해 나가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.

답변 아이고 참 내!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 글쎄, 어떻게 그렇게 답답해요? 아니, 사람은 마음과 육신이 작용을 하죠? 몸만 있고 마음이 없어도 안 되고 또는 마음만 있고 몸이 없어도 아니 되고 이러죠? 그죠? 그러면 생사윤회라는 게 '죽는다, 산다' 이 양면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죠? 생산이 되고 멸하고 이러는 양면이 없으면 진리라고 할 수 없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거를 요렇게 해 봤는데 잘됐다, 잘되다가 안된다, 그러면 안되는 것도 그 되는 데서 또 안되는 게 나온다는 거를 아셔야죠.

이거 보세요. 부산을 향해서 차를 몰고 갔는데 부산에서 더 갈 수가 없습니다, 내가 갈 자리는. 그러면 부산에서 되올 줄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만, 막힌 그 종점에서만 다시금 또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? 한 번 스르르 돌려서 굴려서, 다시 오고 가고 하는 작용을 스스로 돌려야죠.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'어, 잘되는 거를 알려 줬으니까 안되는 것도 법이로다 하는 거를 이제 가르치는구나. 그러니 그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,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그냥 되게끔 할 수도 있잖아?' 이렇게 굴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. 굴릴 줄 알아야 된다! 기계도 가다가 선 것을 굴릴 줄 모르면, 운전을 못 하면 차가 안 갑니다. 인간도 역시 그렇습니다.

용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. 어떤 사람은 그저 주인공에 놓으라니까 그냥 놓고만 가고, 뭐, 바보 같고 그렇다 그러지만 왜 바보 같습니까? 얼마나 부처님께서 묘하고 광대무변하고 똑똑하게 가르치셨는데 아니, 바보같이 왜 삽니까? 하하하…. 할 일을 다 하면서도 '함이 없이 해라' 이런 겁니다.

예를 들어서, 저 나무도 뿌리로부터 몸이 있고 가지가 있고 잎새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꽃을 피우고 과일을 열리게 합니다. 과일들도 제 나무에서 열린 과일이라야만이, 그리고 제 나무에서 익은 과일이라야만이 제 맛을 내는 겁니다. 더군다나 불법이라는 거는 한 나무에 열매 하나가 열리면 만 가지 맛이 난다는 그 맛을 알라 이겁니다.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고 정말이지 자유스럽고 똑똑하게 살라는 거죠.

그런데 뭐가 잘못돼서 바보같이 보이고 그럽니까? 여여하게, 소가 잘못 가면 잘 다스려 가면서 좋은 데로, 너도 좋고 나도 좋게 이렇게 다스려 가면서 똑똑하게 가는데 아니, 누가 머저리 같다 합니까? 하하하….

자식에 대한 착 놓기 어려워요

질문 머리로는 착을 놓아야 한다는 건 알면서도 자식이나 가족에 대한 착은 쉬이 놓아지지 않습니다. 조언 부탁드립니다.

☞ 22면으로 계속

월간 어린이잡지 「마음꽃」 인기코너
〈아무나 쓰는 이야기〉 모음집



장재준 외 56명 글 | 박희진 그림
144쪽 | 12,800원 | 주니어 김영사

신간!

우리가 잘 몰랐던
어린이의 진짜 마음을
알아볼까요?

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.
월요일에는 놀랴,
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,
수요일에는 책 읽으랴,
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.....,
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.....
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!
-본문 중에서

인터넷 판매중

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(교보문고, 알라딘, 예스24 등)에서 구매하세요.